

OLED·폴더블폰 이어 원전까지 넘본다

中 ‘캐파’ 공세에 韓 제조산업 휘청

〈생산능력〉

원가경쟁력으로 보급형 장악 OLED 출하량, 한국 넘어서 글로벌 폴더블 점유율 57% SMR 상용화로 원전도 추격

세계 시장을 휩쓸던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TV·패널 등의 제품에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며 K-가전 업체들의 점유율을 추격해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은 우위에 있지만 중국이 양산(캐파) 경쟁력을 앞세워 대대적 공세를 펴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

널은 5개월 연속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TV 등 대형 OLED 분야까지 주도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8월 기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월간 출하량은 중국 3930만 대, 한국 3850만 대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스마트폰 OLED 출하량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은 TV 등 대형 패널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LCD 등 저가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그 수익을 OLED에 재투자하면서 추격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2023년 73.6%에서 지난해 67.2%로, 6.4%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5.7%에서 33.3%로, 7.6%p 오르면서

점유율 격차를 좁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상승세가 매섭다. 올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57%를 기록했다. 특히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판매량을 빠르게 늘렸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통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원전을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육상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육상 상업용 SMR의 내년 정식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SMR는 대형 원전(1000MW)에 비해 낮은 300MW의 전기 출력을 갖췄지만 반경 200~300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 외곽 등에도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대형 원전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진행 중이다.

삼성KPMG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 따르면 SMR는 2030년에도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300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metro[®]



대한항공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LOWUS)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Loitering Munition)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KUS-FX) 목업(mock-up·실체 크기 모형)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

/뉴시스

李 “2030년까지 국방·우주 R&D 예산 대폭 확대”

서울 ADEX 2025 개막 민간 주도 방산 전환 가속화 ‘AI·무인화’ 중심 기술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도약’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의 기수를 직접 잡았다.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가 본격화되고 민간 중심의 방산생태계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ADEX 2025 현장은 ‘정책과 산업의 교차점’으로 자리잡았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예산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위산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

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우주항공 정책이 상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에 발 맞춰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국산 무기체계와 AI 기반 전투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K-방산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특히 올해 전 시장에서는 ‘AI·무인화’를 중점적으로 기술을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춘 한국형 차

세대 보병전투차량(K-NIFV) 실물과 저피탐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감시·정찰·타격이 통합된 배회형 정밀유도 무기(LPGW)를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차세대 고속 중형헬기 모형(틸트로터형)과 차세대전투체계(NACS)를 공개했다.

AI가 지휘관의 명령을 분석해 무인기와 전투기, 편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미래형 전장 체계를 제시했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사천피 185.31포인트 남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미 관세협상 기대와 한·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4.86%만 더 오르면 달성할 수 있는 ‘코스피 4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6% 상승한 3814.69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3800 고지에 올랐다. 이를 만에 장 중 및 종가 기준 최고점을 갈아치운

것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까지는 185.31포인트(4.86%)를 남겨뒀다.

이날 추가 상승의 일등 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대중 100% 관세’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받아들였다.

한·미 무역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코스피 랠리에 힘을 보탰다.

지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들 주가는 각각 9만8100(+0.20%), 48만5500(+4.30%)까지 상승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李대통령 “국방이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 ▲李대통령 지지율 52.2%로 1.3%p ↓ … “관세협상·에너지출연 영향”

/사진 뉴시스

- ▲정부, APEC 임박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관심’→‘주의’ 격상
- ▲정부 “태국매체가 金총리 캄보디아 발언 허위 보도… 강력 대응”

- ▲輿,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 ▲나토 사무차장 “한국과 방산 포함 실질적 협력 강화할 것”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연구로 이상기후 대응

구윤철 부총리, 성장전략 TF회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계획
2030년 기후예측모델 개발하고
내년 스마트농업 혁신지구 지정

K-바이오·뷰티, AI기술과 연계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 나서기로

정부가이상기후·기후변화에대응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연
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K-바이
오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
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
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은20일 성장전략TF(전담반)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
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
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15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세종국연구단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부총리-정부출연연구기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안건에는 15대 초혁신경
제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융합’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재정·세제·금융·규
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선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과 초고해상도 광
학위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향후 기후 예
측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
운 분야다.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0cm급(현재

30cm)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확
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올해 국
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
&D)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
측모델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내년 중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농업 AX(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솔루션 기
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K-스마트팜 모델을 확산
하고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뷰티 산업도 경쟁력 강화에 나
선다. K-바이오 분야는 AI 기술과 연
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제약사, AI 바이
오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
험실을 구축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
고,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한
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10~15
년) 및 비용(1조~3조 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는 전망하고 있다.

K-뷰티와 관련된 ‘글로벌 성지’를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놴다. 내년 초 체
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 1
곳을 K-뷰티 통합 클러스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피부과학·소
재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에서 글
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의 경우 올해 12월 출범
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밸류체인 전
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분야에는
2조1000억 원, AI 분야에는 30조 원 이
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확
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대해 그래픽처리장치(GP
U)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H유산 ‘선한 영향력’ 의료·예술계 재조명

25일故 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이건희 컬렉션’ 예술 관심 증폭
소아암·희귀질환 등 의료기부도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
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고인이 남긴
‘KH(이건희) 유산’의 가치가 의료계와
예술계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회에 환원됐다. 이는 유족의 결
단으로 시작됐으며 ‘KH 유산’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상속세
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
을 매각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
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21년 문화예
술품 및 의료 기부를 결정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선대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4
월 “문화유산 보존은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등 국가기관에 기증했다. 이는
국내 미술사상 최대 규모의 기증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대전환점’으로 평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는 모습. /삼성전자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문
화예술품 기부는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폭증시켜 한국 미술 시장이 성
장하고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촉매로 작용했다.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350만 명의 관
람객을 모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
다. ‘이건희 컬렉션’은 올해 11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을 시
작으로 시카고미술관(2025년 3~7월),
영국 대영박물관(2025년 9월~2027년 1
월) 등에서 순회전을 연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거장으로 불리
지만 해외에 덜 알려진 박수근, 이중섭
등의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 소개될 예
정이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이건희 컬

렉션은 단순한 기증이 아닌, 한국 문화
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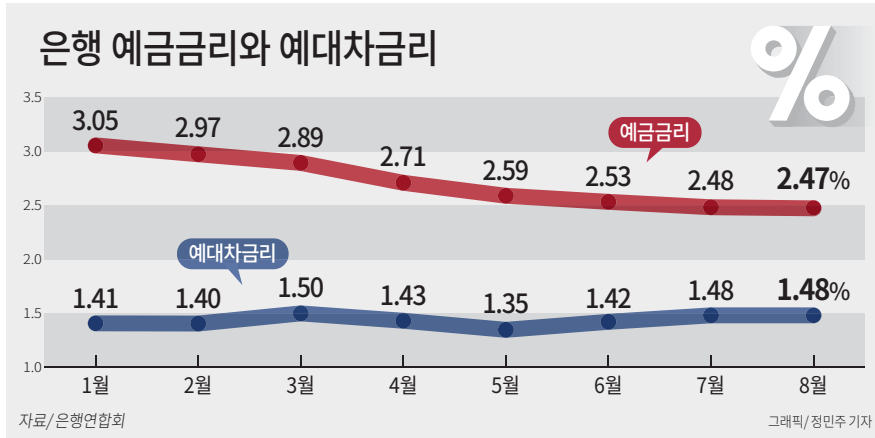
또 이 선대회장이 생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에 노력한 만큼,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3000억원을
기부해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지원사
업’을 출범하는 등 의료 기부에도 힘쓰
고 있다.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30
년까지 10년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160개 기관,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
하고 있다. 진단·치료·연구 3개 부문으
로 나뉜 사업은 현재까지 2만2000여 명
의 환아를 지원했다.

유족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
병 대응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했다.

소아암·희귀질환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희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유족
의 의료기부를 계기로 어린이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후원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
는 사회적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암·희귀질환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 및 진단, 치료와 국내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중앙감염병전
문병원도 202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예대차 금리 확대... 은행 또 최대실적 내나

부동산 대책 영향 주담대 금리 올라
변동형 금리 지난 9월과 비슷한 수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
어지고 있어 예대차 금리는 더욱 벌어
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
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의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변동형)는 이
날 기준 연 3.82~5.97%로 집계됐다. 지
난 9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 3.81~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
슷한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
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
제 및 금융 규제 지역 지정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계대
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량 감축 등) 대출태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출태도 강화는 불가
피하게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의 취급,
대출금리 인상(또는 유지)를 야기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의 예금금리는 낮
아져 예대차 금리가 커질 수 있다.

예대차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의
대출금리와 예금을 받을때지급하는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마진으로 불린다. 이
차이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진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는 기본금리 연 2.05~2.58%, 최고금리
연 2.55~2.58% 수준이다.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두배
이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
기예금 금리는 ▲1월 3.05% ▲2월 2.
97% ▲3월 2.89% ▲4월 2.70% ▲5월
2.59% ▲6월 2.53% ▲7월 2.48% ▲8
월 2.47%로 떨어졌다. 반면 예대금리
차는 같은기간 1.41%→ 1.40%→ 1.
50%→ 1.43%→ 1.35%→ 1.42%→ 1.
48%→ 1.48%로 벌어졌다. 예대차 금
리가 벌어지며 은행의 이자이익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신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
신금리 하락폭은 제한돼 업종 방어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순마진이익은 약 1b
p에 그쳐 실적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JP모건 “코스피 4000 넘어 5000 예상”

» 1면 ‘코스피 사상 첫...’서 계속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전망을 기존
3250에서 3800으로 상향하면서 초강세
장이 나타나는 경우 4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

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퍼사이클,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K
컬처 산업 성장세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
력”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향후 코
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에 풀린 돈도 주식시장으로 몰리
는 분위기다. 투자자예탁금은 78조3145
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세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
아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3조8800억
원에 달한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8
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신제품 등 초격차 기술력 반격

화면 두 번 접는 새로운 폼팩터
APEC 현장서 실물 전시 예정
이르면 내달부터 신제품 판매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폰 신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대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트라이폴드폰 상용화를 주도하느냐가 시장 점유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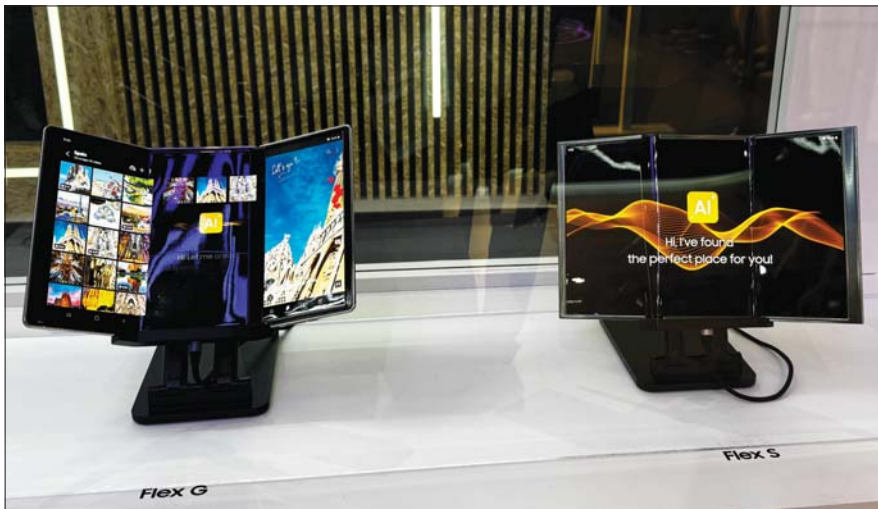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과 활발한 신제품 출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화웨이가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제품 출시 효과로 판매량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5 테크 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더욱이 중국 기업들이 올 하반기 중 동,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을 앞세워 트라이폴드폰으로 반격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트라이폴드폰은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화면을 두 번



삼성디스플레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서 화면이 두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접는 새로운 폼팩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장에서 트라이폴드폰 신제품 실물을 최초 전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 화웨이가 최근 트라이폴드를 최초 출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완성도와 생산 능력,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차별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총 3개의 배터리를 탑재해 자사 폴더블폰 중 최초로 배터리 용량이 5000mAh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폴더블폰이 접이식 구조로 인해 배터리 탑재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갤럭시 Z시리즈는 5000mAh 이하의 배터리를 탑재해 왔다. 다만 이번 신제품은 기존 한계를 넘어 대용량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듀얼 인폴딩’(G자형) 구조도 큰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내구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프리미엄폰 시장인 미국에선 삼성전자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미국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제조사들이 고객사 다변화와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것”이라며 “아직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을 대비해 경쟁 구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MR 실증·상용화 지지부진… “정치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中 등 글로벌 SMR 사업화 경쟁
韓 정책 불확실성으로 동력 제약

한국이 2030년대 상업화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실증 및 가동 일정을 앞당기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글로벌 SMR 사업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SMR 실증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심사를 18개월 내, 기존 원전 가동연장 승인을 12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의 약 4배인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스시스

했다.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개발사에도 연방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 주도로 하이난성 창장(昌江)에서 다기능 모듈형 소형 가압수형 원자로 ‘링롱 1호’의 자온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단계별 가동 절차를 거쳐 2026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일 인허가 체계와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조기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실증·상용화 단계에 돌입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장 진입 타이밍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2035년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증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증 착수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경쟁국 대비 상업화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SMR의 상업적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실증 속도전은 더욱 가팔라

지고 있다. SMR는 모듈형 양산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전력 수요 변화에 따라 용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연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 고집적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소형·중형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디테크엑스는 SMR 시장이 2033년 724억 달러(약 101조원)에서 2043년 2950억 달러(약 4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제도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면 장기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핵심 인력과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비와 일정의 일관된 보장이 기술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미·중 ‘감소’ 亞·EU ‘증가’

9월까지 5197억달러… 전년비 2.2%↑

수출지역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양대 수출국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대미 관세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새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분기별 실적도 지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3분기 수출은 1850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아세안, EU로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품목별로 반도체(1197억 달러, +16.8%), 자동차(541억 달러, +2.2%), 바이오(+9.4%), 선박(+23.6%)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다.

자동차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14%)은 관세조치와 현지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EU(+25%)·CIS(+5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중 최

대치를 견신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일반기계(-8.7%) 등은 유가 하락과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81.6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71.3달러로 12.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외 화장품(+15.4%), 농수산물(+8.1%), 전기기기(+9.0%)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9월까지 77.4%로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지역별 수출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3.6%)과 미국(-3.8%) 등 전통 2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7.0%), EU(+4.5%), CIS(+18.4%), 인도(+3.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9대 수출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17.7%로 가장 높고, 미국 15.6%, 아세안 16.8%, EU 10.9%, 중남미 4.6%, 일본 3.9%, 중동 2.8%, 인도 2.6%, CIS 2.3% 순이다.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리를 아세안과 EU 등 신흥시장이 채워가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부진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

선박·자동차부품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EU 수출도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이 크게 늘어나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견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멘텀 유지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李 “국방 의존 시대 끝내야 한다”… 자주국방 의지 재확인

李, 개막식 참석 후 토론회 주제
국방·항공우주 R&D 대폭 확대
기술 주권 확보에 예산 집중
민간·스타트업 참여 문턱 완화
국산화·시장 다변화 방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산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

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

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축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1면 ‘李 “2030까지 국방…’서 계속

AI·수소·우주로 확장된 전장… 이젠 ‘기술이 무기다’

현장르포

초고해상도 위성 첫 공개
AI 방공체계 실시간 대응
메탄엔진·수소전차 첫선
한화·현대·KAI 등 총집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차세대 전장 기술을 일제히 공개했다. AI·수소·우주 기술로 확장된 ‘K-방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화 방산 3사(한화시스템·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는 1960㎡ 규모 통합관을 꾸려 ‘K-방산의 미래’를 주제로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은 초저궤도(400km 이하)에서 15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초고해상도 SAR 위성 ‘VLEO UHR SAR’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cm급 해상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한화는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AI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F-21 전투기용 AESA 레이다 ▲무인전투기용 공랭식 AESA ▲GA-ASI 그레이이글-STOL용 소형 AESA ▲레오나르도와 공동개발 중인 GRIFO-EK 등 4종 레이다를 공개했다.



한화 방산 3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에 참가해 최첨단 K-방산 미래 전장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A-ASI와 공동 개발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이글-STOL’ 목업을 처음 공개하고, 궤도형 무인지상차량(UGV) ‘데미스(Themis-K)’ 등 자율 무기 라인업을 선보였다. AI 기반 통합 방공시스템은 위협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 대응체계를 자동 제시하는 지능형 방어체계로 주목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로템·기아·현대위아가 함께 통합관을 구성해 ‘지상에서 우주까지, AI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메탄엔진, 덕티드 램제트,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등 항공우주용 엔진 기술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메탄엔진은 재사용 발사체에 적합한 차세대 추진체로, 현대로템은 국방기술

진흥연구소의 35톤급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플랫폼 ‘블랙 베일’, 폴란드형 K2PL 전차, 수소 차륜형장갑차 등도 함께 전시했다.

기아는 군용 지휘차량 ‘타스만’을 실물 공개하고, 병력·화물 수송용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와 드론탑재차, AI 경계차 등 특수목적차 라인업을 전시했다.

현대위아는 경량형 105mm 자주포,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대드론 방어체계(ADS), 함포 등 지상·해상 화력 체계를 선보이며, 실제 소형전술차량 탑재 시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제로 육·해·공 통합 전투체계를 선보였다.

다목적 무인기 AAP(Adaptable Aerial Platform) 실물기를 최초 공개했으며, 이는 자폭·기만·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로 평가된다. AI 조종사와 교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ACP’와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Heliborne MUM-T) 기술도 함께 전시됐다. 또한 초소형·중형·광학 위성 모형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KAI의 우주 기술력을 선보였다.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전력인 ▲저궤도 무인편대기(LOWUS) ▲중형 타격 무인기 ▲소형 협동 무인기(KUS-FX) 등 3종을 최초 공개했다.

특히 저궤도 무인편대기 시제기는 시험비행을 앞둔 단계로, 유인 전투기와 복수의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차세대 전력이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중형 타격 무인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임무자율화 기술을 적용해 무인기가 스스로 판단·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미국 안두릴(Anduril) 등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 구현하고 K-방공망 벨트로 방산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과 국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통해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5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 전장혁명 가속”

확장현실(XR)을 적용한 작전 시뮬레이션은 전투지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항공은 AI 조종사와 유인기가 협업하는 저궤도 무인편대기를 내세웠다. 내년 2월 시험비행을 앞둔 이 기체는 위험지역 임무 수행용으로 개발 중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100시간 이상 체공하며 1000km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중형 자폭무인기까지 공개해 ‘AI 전투 드론’ 시대를 선도했다.

또한 이번 ADEX2025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이 한데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출범 이후 처음 참가한 우주항공청(KASA)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우주항공관’을 운영하며 발사체·탐사·위성·천문 기술을 전시했다. 우주항공관은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SBIR 제도(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 소개와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우주항공청은 행사 기간 동안 영국·브라질·독일·네덜란드 등과 양자회의를 열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브라질 국영기업 알라다(ALADA)와의 면담에서는 11월 첫 상업위성 발사를 앞둔 국내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협력 확대도 논의됐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 위해 에어쇼에 전력투구한다”며 “서울 ADEX는 K-방산 수출의 현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기지”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법사위 ‘李 재판’, 농해수위선 ‘김현지-산림청장’ 두고 충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2주차

與,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제시
野 “李 대통령 재판 진행해달라”
나경원 남평 김재호도 국감 출석
김인호, 산림청장직 ‘셀프 추천’
추천서에 김 실장과 인연 드러내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치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평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

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

슨 애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팩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늘리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나선다

〈3년간〉

민주당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김기표 의원, 재판소원제 개인발의
국민의힘 “李 대통령 재판 묻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4심제’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 발의해 당 지도부안(案)으로 논의의 이어가기로 했다.

당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26인 체제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로 구성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해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

하게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을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수 증원(10명→12명)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포함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열람 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 사전 심 문제 도입 등도 당 사법개혁안으로 발표

했다.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질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까지 발표하며 사법·언론 개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당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근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입찰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최대 10억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두 가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흥위병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 두겠다”고 했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는 “전국민을 ‘입찰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서 ‘깜짝 정상회담’ 가능성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 전망도

2025 경주 아시아경제협력력(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곳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머무는 기간 중 김 총비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유엔사는 이에 대해 “가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JSA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은 안전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북

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 총비서와 회동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깜짝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비서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

간 여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답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대화를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의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대한민국 No.1 국물요리

Nielsen Korea 냉동 국탕찌개 카테고리 판매액 기준 (23.01~24.10)



HOME:INGS
호밍스

만족을 요리하다

해동 없이 물만 부어 끓이는

초간편
국물요리

부동산 규제 도마위… ‘집값 안정 vs 서민 피해’ 여야 공방

2025 금융위·한은 국감

정부 “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
야 “거래 막는 탁상행정” 비판
한은 “수요억제만으론 한계”
전세대출 DSR 포함도 논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 정부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냈다.

같은 날 열린기획재정부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현 상황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 뿐만이 아닌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둔 6·27 대책,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9·5 대책에 이어 추진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특히 토지거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스

허가구역 지정에 큰 비중을 뒀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같이 말했다.

이현승 의원은 “(이번 규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상

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실패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 공급의 부족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금융위는 땀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담대가 막히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

면서도 “그러나 9·5 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을 공급해야지, 살고싶지 않은 곳에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 없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를 방지하면 부동산 가격의 양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과 생애최초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땀방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라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만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 상황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전세대출과 같은 제도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며,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된다. 공급은 현재 서울 지역에 서민 (공급 부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라면서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 보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처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이상은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해당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의원·약국 참여 3%…실손보험 전산청구 ‘확산 분수령’

‘실손24’ 2단계 25일 시행

실손보험 청구 디지털 전환 가속
제도 완비…현장 연동속도는 더더
의원·약국 등 참여율이 성패 좌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 2단계를 시작한다. 지난해 병원급·보건소에서 출발한 1단계를 넘어 의원·약국 약 9만6000곳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종이 서류 없이 앱·웹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원·약국의 낮은 사전 참여율, EMR(전자의무기록) 연동 속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 및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진료

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입원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 첨부로 제출할 수 있다. 제도상 전자전송 대상 서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절치는 실손24 앱·웹에서 동의→전송으로 표준화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를 가동해 점검에 나섰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참여 요양기관은 7801곳(병원 1085곳·보건소 3564곳·의원 1862곳·약국 1290곳)으로 집계됐다. 1단계(병원·보건소) 참여율은 약 59%, 의원·약국은 3.3%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제도·시스템은 열렸지만 현장 참여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

는 ‘가속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참여 요양기관 일 반보험료 3~5%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시에 EMR 업체의 개발·확산·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연동 커버리지를 넓힌다. 의료기관의 비용·업무부담 우려를 낮추기 위한 설계다.

소비자 경험도 빨라진다. 30만원 이하 통원 중심 사 불필요(비조사)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프로세스가 정비됐다. 이용 경로도 확대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이

바 ‘네·카·토’와 연계해 예약→청구까지 원스톱을 구현하고 지도 서비스에 연계 병·의원과 인근 약국 표시도 예고됐다. 초기에는 시스템 부하·오류 대응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 후 처리시간(TAT) 공개가 중요하다.

관건은 참여율과 신뢰다. 제도의 취지(편의·신속)는 충분히 확보됐다. 남은 파즐은 의원·약국의 연계 속도와 데이터 거부본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와 인센티브가 현장에 스며드는 과도기라 업계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가입자 안내와 초기 오류 대응 정도뿐”이라며 “초기 참여율이 낮아 보여도 의무 시행이 본격화되고 EMR 연동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한 ‘메이플자이’. /GS건설

GS건설 ‘메이플자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메이플자이’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 3차 국민 참여 평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다.

GS건설의 ‘메이플자이’는 재건축이 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메이플 나무로 두 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 컨셉이며, 단지에 단풍나무를 이용한 차별화된 조경을 담았다. 이번 수상은 고객들의 단풍나무에 대한 추억을 담은 조경을 계획한 GS건설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2025년 준공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총 3307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반포자이를 잇는 GS건설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아파트 신고가 급증… ‘핵심지 회복’ 본격화

6·27 이후 숨고르기 끝 반등세 뚜렷
강남3구 중심 신고가 비중 40~50%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도 상승 합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빠르게 늘며 핵심지 중심 회복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도 이 같은 상승 압력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5년 6

~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2%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10월은 아직 거래가 집계 중이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도 9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대가 상단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9월 기준 서초구 신고가 비중은 5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42%), 용산구(35%), 송파구(32%)가 뒤를 이었다.

이번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

역에 포함된 마포(44%)·성동(43%)·광진(50%)·동작(36%)·강동(37%) 등도 신고가 비중이 빠르게 늘어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 특히 성동·광진·강동으로 이어지는 한강 동측 축과 마포·동작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양천·영등포·서대문 등 중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9월 기준 영등포구는 신고가 비중 29%, 양천구 28%, 서대문구 24%로 집계됐다. 반면 노원·도봉·금천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며 온도차를 보였다.

/전지원 기자 jjw13@

결속·실행으로 위기 돌파 선언 “퓨처빌더로 미래성장 다시 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사내메일 통해 임직원에게 첫 메시지

AI·친환경 기술로 미래 경쟁력 강화
조선·전기·정유 위기극복 의지 강조
디지털 전환·해외시장 개척 속도전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사내 메일을 통한 첫 메시지에서 임직원에게 ‘결속·실행 의지’를 당부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20일 회장 취임 후 임직원에게 보낸 첫 메일에서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뭉쳐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퓨처빌더(Future Build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16년 만인 지난 17일 회장직에 올랐다. 이로써 HD현대 오너 경영 체제가 37년 만에 부활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우리 그룹이 당면한 경영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선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잠식이 모든 선종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랜 단골 선주들조차 더 이상 한국에 배를 주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건설기계 사업은 미국 관세와 초대형 경쟁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 9월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주요 생산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HD현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업현장의 딜러들은 우리가 야심차게 개발한 소형 건설 장비도 현재 원가 수준으로는 판매가 어렵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가 처음은 아니다”며 “1972년 울산조선소 기공식 이후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전력을 다해 실행해서, 결국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FOS라는 우리만의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 차이를 줄여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제조원가 경쟁력이 있는 해외 야드를 확보, 발굴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서는 “불황 속에서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국내 경질유 시장 축소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순환·바이오 등 친환경 제품과 윤활유·발전 등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자율운항, 연료전지, 전기추진, 배터리팩, 로봇, 소형원자로(SMR), 해상풍력, 태양광 등 우리의 미래 사업들도 우리가 해당 분야의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 건식증착 탠덤전지 기술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박차
세계 최고 효율 28.7% 달성

HD현대의 태양광 전문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식 진공증착 방식을 활용한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핵심 기술 구현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이다. OLED 양산 공정에서 활용되는 건식 진공증착 기술을 탠덤 태양전지 제작에 적용해 기존 용액공정 대비 대면적화와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탠덤(Tandem) 태양전지는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쌓아 직렬로 연결하는 구조로 태양광 흡수대역을 확장해 기존 실리콘 셀 대비 최대 2배에 가까운 발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99%의 페로브스카이트 셀이 습식 용액공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해당 방식은 대면적화 및 공정 재현성 확보가 어려워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OLED 양산 공정에서 검증된 건식 진공증착 기술을 응용해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고효율 HJT(헤테로정선) 실리콘 셀에 접목함으로써 건식증착 공정 탠덤 구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28.7% 효율을 구현했다. 양사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30% 이상 공인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화 및 모듈화 공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실리콘(HJT)-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상용화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화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분야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리콘 태양광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차세대 탠덤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AI, 미래 항공기술 동맹 넓힌다

유무인복합체계 협력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연이어 손을 맞잡았다. 미래 항공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보다.

KAI는 20일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에 어버스와 포괄적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사는 특수임무항공기, 고속중형기동헬기, KF-21·FA-50 공중급유시합비행, 군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 공동개발 등 20여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 신기술 분야와 신규 사업 발굴까지 파트너십을 넓힌다.

KAI는 또 미국 크라토스(KRATOS)와 유무인복합체계(MUM-T)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KAI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차세대 복합체계를 6대 미래 플랫폼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조종체계 ‘KAILOT(카일럿)’을 중심으로 ‘자주적 AI(Sovereign AI)’ 구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미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기관은 항공안전, 감항인증, 국산 기술력 제고, 후속 국토위성사업 등 주요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KAI는 KAIA와 전략적 협력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KAI의 체계종합 및 수출역량과 KAIA의 연구개발 역량을 접목시켜 민관 협력기반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승용 기자

LG엔솔, 극저온·고온 전지는 전해질 개발

포스텍·성균관대와 공동 연구
영하 20도서 용량 87% 유지
열폭주 90% 이상 억제 성공

LG에너지솔루션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일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영하 20°C의 극한 환경에서도 100회 충·방전 후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90% 이상 억제하는 전해질 기술을 구현했다. 이는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일반적인 배터리 셀이 동일 조건에서 약 10% 수준의 용량만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와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A(Journal of Materials Chemis-

try A)’에 각각 게재됐다. 핵심 기술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이다.

이온성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한 물질로,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APT 계열 화합물은 단순 첨가제를 넘어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해당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저온 환경에서의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했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논문에서는 APT 계열 화합물이 전해질 혼합물의 녹는점을 특정 비율에서 크게 낮춰 점도를 감소시키며, 극저온에서도 이온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어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

리 A 게재 연구에서는 동일한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했을 때 열폭주를 기존 대비 90% 이상 억제해 열전이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셀 제작 및 분석 인프라, 포스텍의 화합물 합성 기술, 성균관대의 계면 분석 역량이 결합된 산학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이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라며 “APT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 초대형 프리미엄 홈 시네마 공략

‘능동형 마이크로 LED’ 선택

LG전자가 마이크로LED 신제품 ‘LG 매그니트 액티브 마이크로LED’를 선보이며 한층 진화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LG전자는 오는 21일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LG 매그니트 신제품(모델명: LSAH007)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초대형·초고화질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인 LG 매그니트 라인업 최상위 모델로, 136형(가로 약 3m·세로 약 1.7m)의 압도적인 크기에 4K(3840x2160) 해상도와 100만대 1에 이르는 명암비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LED 중에서도 픽셀을 개별 제어하는 능동형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행과 열 단위로 제어하는 일반적인 수동형 매트릭스 제품 대비 훨씬 섬세하게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자적인 모듈 표면 처리 기술로 빛 반사를 최소화해 어떤 시청 환경에도 깊이 있는 블랙과 함께 정확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정밀한 정렬로 모듈 간 틈새를 최소화했고, 화면 감싸임을 없앤 플러커 프리 설계로 장시간 시청 시에도 눈의 피로감이 적은 편안한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규제 비켜간 대형 식자재마트 골목상권·전통시장 피해 속출

‘면적 쪼개기’ 등 꼼수 만연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
소공연 “제도개선 절실”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디스트를 비롯한 대형 식자재마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형 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때문에 문어발 확장 등 무차별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줘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업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를 ‘오프라인 유통업체

의 포식자’로 칭하고, 식자재마트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 가운데 ‘빅3’로 불리는 푸디스트, 장보고, 세계로가 2024년에만 총 1조45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중 1위인 푸디스트는 지난해 매출만 1조50억원을 거뒀다.

사조씨피케이(68.16%), 사조오양(31.7%) 등 사조그룹이 대주주인 푸디스트는 위탁 급식 사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현재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상일, 신월, 마포 등에 11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시화 됐다”면서 “신규 입점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로 대규모유통업법도 회피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인인 165~3000㎡ 규모의 SSM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900~3000㎡ 미만 식자재마트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대형마트, SSM과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영업과 365일 휴무 없는 사업장 개시로 규제 없이 골목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식자재마트를 등록·입지 제한, 등록·절차 및 지역 협력, 영업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식자재마트와 입점사업자간 거래 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왼쪽부터)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가 20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S머트리얼즈

LS머트리얼즈, 전남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LS마린솔루션-전남도-해남군 MOU

LS머트리얼즈와 LS마린솔루션은 20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해남군과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에 조성되는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단지 구축에 필요한 대형 기자재의 조립·적재, 선박 정박, 울트라캐패시터(UC) 기반 모듈 제조 기능을 갖춘 복합 인프라다. 양사는 전남도와 협력해 해당 항만을 해상풍력 밸류체인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약 13GW 규모로 조성될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항만 운영 주체로 참여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기존 수출 중심의 풍력시장용 UC 모듈 제조사

업을 국내 시장으로 확대한다. LS마린솔루션은 대형 HVDC 포설선의 정박 및 운영 거점으로 항만을 활용하고, 신규 추진 중인 해상풍력지원선(SOV) 사업과 연계해 단지 운영·유지보수 역량을 제고한다.

이번 MOU를 통해 LS전선을 비롯한 관계사들은 해저케이블 공급·시공, SOV, 풍력 모듈, 항만 운영을 연계한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서해안 HVDC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해남 설치항만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로, 서해안이 해상풍력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대한항공, ‘날아다니는 지휘소’ 만든다

방사청 ‘항공통제기 2차사업’ 수행
“특수임무 항공기 산업 기반 조성”

대한항공은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와 만든 컨소시엄이 방위사업청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행업체로 지난달 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평가받는 주요 항공 자산이다.

이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주 계약자인 미국 항공·방산 기업 L3해리스는 대한항공, 이스라엘의 IAI ELTA와 협력해 우리 공군이 원하는 항공통제기 4대를 2032년까지 공급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협력 업체로서 기본 항공기인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4



항공통제기 예상 이미지.

/대한항공

대를 구매해 L3해리스에 제공하고, 1·2호기 공동 개발 및 3·4호기 국내 개조를 담당한다. 전자전기 사업 포함, 항공기 6대를 구매하게 될 예정이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지휘소’로 불린다. 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통제 임무를 위해 개조된 고고도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 공중 전투관리를 지원한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고 오랜 시간 비행하지만 낮은 비용으로 영공 방위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항공통제기 사업을 통해 최신 특수임무 항공기의 개조·통합 및 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형 특수임무 항공기 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KCC, ‘코마린’ 참가… 친환경 도로 소개

실리콘 방오도로·단열재 등 전시

KCC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 전시회 ‘코마린(KORMARINE) 2025’에 참가해 친환경 도로 등을 선보인다.

20일 KCC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 1전시장 2번 홀(부스번호 2F53)에 부스를 마련하고, 선박도로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을 국내외 고객사에 선보인다.

KCC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실리콘 방오도로 ‘MetaCruise BF’ (Biocide Free)와 선박용 단열재를 주요 전시

품으로 소개한다.

올해 출시한 MetaCruise BF는 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은 실리콘 방오도로다. 제품은 선체 표면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

KCC는 또 선박의 내화 및 단열 성능을 높이는 무기 단열재 제품군도 함께 선보인다. 국내(KS)는 물론 일본(JIS), 유럽연합(CE) 등 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성능·안전성을 인증받은 미네랄 울·세라크울·그라스울 제품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대동-두산로보틱스, 농산업 로봇 사업 맞손

온디바이스 AI 공동 개발 등 협력

대동의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과 두산의 로봇 팔이 만나 새로운 농산업 필드로봇을 탄생시킬 전망이다.

대동은 두산로보틱스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동 개발 및 농산업 로봇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팜 및 실외 작업 환경에 특화된 자율이동 조작로봇(AMR)을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필드로봇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사업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스마트팜 농작업용 필드로봇 개발 ▲일반 산업용 필드로봇 개발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원유현 대동 대표(왼쪽)와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온디바이스 AI 개발 ▲필드로봇 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계 “세제·금융 등 지원 절벽 여전”

중견련 중견기업법 2주년 학술대회
“산·학·관 협력 통해 실효성 높여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이 2023년 5868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70만4000명, 수출은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법에 명시된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기업·학계·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

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선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등 현행 중견기업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부처 변경 등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 지원 체계 및 실행 주체 등 명문화화를 통한 법의 실질적 실행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제2회

 G밸리 Gvalley Art Show **아트쇼**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
하다

STEP1. 푸른 청춘의 외침展

2025. 9. 1월 - 9. 13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2. AI아트展 & AI영상 광고展

2025. 9. 15월 - 9. 27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3.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展

2025. 10. 22수 - 11. 8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가산 **SK V1 center** 20F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아쿠아픽к 본사 내)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청년작가 및 AI작가 전시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시 및 작품 문의 02-6743-3303

주최 **G밸리아트쇼 조직위원회**

 **KIBA**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주관 **SOHWASO**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aquapick**  가산 **SK V1 center**
아쿠아픽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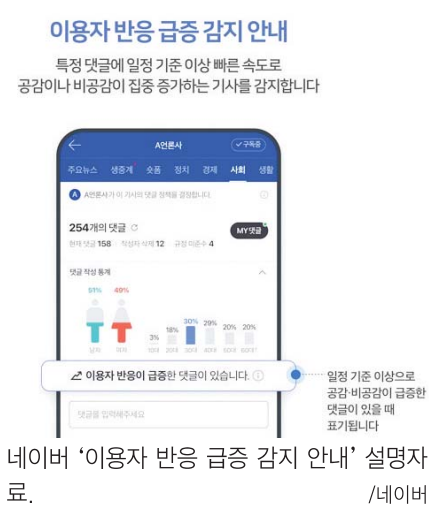
국감서 네이버 댓글조작 대응 강화·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 도입來 60여건 ‘이상 반응’ 탐지 대표 포털로 민주주의 수호 책임

지역뉴스 소비자에 균형정보 제공 뉴스제휴촉 구성 시 지역인사 포함

2025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댓글 여론조작 대응 강화와 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가 잇따랐다. 네이버는 댓글 급증 자동 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정치 뉴스 댓글 기본 비활성화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60여 건의 ‘이상 반



네이버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안내’ 설명자료. /네이버

응’을 탐지했다. 이는 특정 세력이 외부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특정 댓글로 이용자들을 유도해 공감·비공감을 집중시키는 ‘좌표 찍기’ 방식의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네이버는 댓글 반응이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 ‘이용자 반응이 급증한 댓글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댓글을 자동 비활성화하거나 정렬 기준을 최신순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회사는 정치 분야 기사에 한해 기본적으로 댓글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를 직접 선택해야 볼 수 있는 구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악성댓글지수를 도입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닫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양문석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국가 대표 포털로서 네이버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

했다.

◆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도 이어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언론 제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 중심의 뉴스 생태계 속에서 지역 뉴스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고정된 심사위원 구

성에서 비롯된 편향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00~500명 규모의 위원 풀을 운영하고, 심사 때마다 무작위로 50명을 선발하는 ‘배심원제’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정책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월 1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심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실명·국적 인증 논의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 뉴스 댓글에 대한 국적 인증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직선거 기간만이라도 내국민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IP 기준으로만 구분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까지 고려한 국적 기반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이노베이션 허브’ 개소 MS와 국내 산업계 AX 지원

KT 광화문 사옥에 595㎡ 규모로 마련 AX 전시 관람·맞춤형 컨설팅 제공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서울 광화문에 국내 산업계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T 광화문 사옥 웨스트 빌딩에 약 595㎡ 규모로 마련된 KT 이노베이션 허브는 B2B(기업 간 거래) 고객이 AX 관련 전시를 관람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공간이다.

다수의 AI가 협업해 고객 요청에 맞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KT와 MS의 AX 전문가가 기업의 업무 혁신 실현을 위한 기술적 조인과 솔루션 설계를 제안하는 컨설팅 공간도 준비됐다.

고객사는 설계된 솔루션을 최대 5일



KT와 MS가 손잡고 국내 산업계 AX를 지원한다. /KT

내 실행 가능한 시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 기술 실험성 검증도 가능하다.

KT AX 컨설팅 전문 조직인 ‘AXD 본부’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실체가 있는 AX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AXD 본부는 MS 기술 전문 인력과 협업해 고객이 체험한 혁신을 산업 맞춤형 AX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풀패키지 서비스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카카오엔터, 이달 화제 신작웹툰 4종 선봬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서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일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10월 화제의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했다. 플랫폼 대표 작가의 신작과 인기 웹소설 원작 노블코믹스가 포함돼 다양한 독자층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주인공의 꽃길에 올라타는 방법’은 누적 조회 수 1000만 회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현대 판타지 세계로 환생한 ‘강나현’이 각성자 아카데미에 입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액션과 로맨스, 유머를 조화롭게 녹여내 폭넓은 독자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천재 대장장이의 게임’은 조회 수 5000만 회를 기록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액션 판타지다. 대장

간 화재로 손을 잃은 주인공 ‘현수’가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다시 제작의 꿈을 이루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그렸다. 몰입감 높은 전개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공개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돌파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의 원작자 강태경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경북궁 깊숙한 곳 ‘기담민원처리과’에 근무하게 된 신입 공무원 ‘정술’이 신화 속 존재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독특한 세계관과 기묘한 분위기로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흡입력 있는 전개를 펼친다.

다음웹툰 시절부터 누적 조회 수 1억 9000만 회를 기록한 ‘홍도’의 외전이다. 본편 결말 이후 주인공 홍도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인간과 주술사, 신묘한 생물이 공존하는 세계관을 한층 깊이 있게 확장했다.

/최빛나 기자

위메이드커넥트, ‘라그나로크 유니버스’ 공동개발 착수

그라비티-갈라랩과 ‘맞손’ 제작·서비스·e스포츠 협업

위메이드커넥트는 20일 그라비티, 갈라랩과 MMORPG 흥행작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신작 ‘라그나로크 유니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세대의 ‘라그나로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라비티의 IP 경쟁력 ▲갈라랩의 핵심 콘텐츠 제작 역량 ▲위메이드커넥트의 글로벌 퍼블리싱



(왼쪽부터)그라비티 박현철 대표와 위메이드커넥트 이호대 대표, 갈라랩 김현수 대표가 3사 사업 협력 계약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

및 서비스 경험이 결합된다. 이를 통해 제작부터 서비스, e스포츠 운영까지 유

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그나로크’는 2002년 그라비티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선보인 1세대 온라인 MMORPG다.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세계관과 다채로운 직업군, 카드 시스템, OST 등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장기 흥행 IP로 자리 잡았다.

이후 모바일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해 ‘라그나로크M: 영원한 사랑’, ‘라그나로크 오리진’,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 다양한 시리즈를 선보였다. 각 작품은 원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간 팬층을 넓혀왔다.

/최빛나 기자

메타빌드, AI 복지행정 지원 솔루션 개발

NIPA 추진 과제 수행기관 선정 총사업비 30억 규모… 2년간 진행

인공지능(AI)·연계소프트웨어전문 기업 메타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5년도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지원 과제 공모에서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메타빌드는 복지급여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복지행정 전주기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전국의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과 실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AI 복지행정 데이터 구축, AI 서비스 설계, AI 인프라·개발환경 조성에 나서고, 2026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개인별 소득·재산·보장·자격 정보 등 약 120만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메타빌드는 자체 개발한 ‘LLaMoN(라몬) AX’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서류 자동 분석,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행정담당자 업무 지원, 복지정보 통합검색 등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는 AI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전성배 메타빌드 AI총괄대표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AI가 실제 행정현장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돕는 실증형 프로젝트”라며 “AI 플랫폼 풀스택 제품 역량과 민관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복지행정의 AX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LG U+, 개인맞춤 강화 ‘익시오 2.0’ 공개

AI 대화 검색, 스마트 요약 등 추가

LG유플러스가 개인 맞춤형 기능이 강화된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 xi-O) 2.0’을 20일 공개했다.

익시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과 통화 녹음·요약, 보이는 전화 등의 기능을 탑재한 AI 통화 앱이다. 기존 익시오 1.0 버전에서는 위변조된 목소리가 지 탐지하는 ‘안티답보이스’ 기능을 추

가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강화에 중점을 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개인 맞춤형 AI 기능을 더한 ‘익시오 2.0’을 선보였다. 신규 기능은 ▲AI 대화 검색 ▲AI 스마트 요약 ▲디스커버 2.0 등이다.

‘AI 대화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이전의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AI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AI 스마트 요약’은 통화 내용을 사용자의 필요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이고, ‘디스커버 2.0’은 통화와 문자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AI 기능을 추천하는 안내 페이지다.

이외에 안드로이드 버전 익시오 2.0에는 고객이 피싱 위험 URL에 접속하면 이를 확인해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위험 URL 탐지’ 기능과, 문자로 받은 쿠폰이나 예약일정을 알아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AI 문자 리마인더’가 새롭게 생겼다.

/김현정 기자

美中 갈등완화·관세협상 조짐… “코스피 4000시대 온다”

코스피 3800선도 돌파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 58.95%
美, 中 100%추가관세 사실상 철회
APEC서 트럼프-시진핑 회담 등
국내 증시서 심리적 호재로 작용
“기업 지배구조 등 개혁도 필요”

“와우~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는 가뿐할 듯요”, “추매(추가매수)하고 싶은데 조정 오는 것도 아쉽고 안 오는 것도 아쉽다”, “코스피200 ETF 지금 들어가도 될까.”

코스피가 20일 3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자 국내 주식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잇따랐다.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상승세에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흥분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코스피에 불이 붙었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이달 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미·중 무역 갈등, 한·미 관세 협상)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젠 ‘최고치’라는 수식어가 식상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ChatGpt로 생성한 ‘장중 코스피 3800 돌파에 환호하는 투자자들’

◆‘4000피’ 코앞

코스피는 이날까지 올들어 58.95% 올랐다. 월별 상승폭을 보면 지수가 3000선으로 올라서던 6월에 13.86% 올라 월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7월엔 5.66%로 상승폭이 줄고, 8월엔 1.83% 하락했다. 코스피는 9월 들어 다시 상승하며 한달간 7.39% 올랐고, 10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벌써 11.39%나 올랐다.

이날 코스피의 불을 지핀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밝히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예고했던 ‘대중 100% 추가 관세’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일정을 재확인한 것도 투자심리를 안정시켰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갈등 완화 기대를 자극하며 국내 증시에 심리적 호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부분의 쟁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코스피 랠리를 이끌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8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 1000원, 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이동)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에 나와 세법개정안에서 35%로 책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증권가는 이번 주 있을 빅 이벤트들이 코스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한·미 협상 결과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 2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도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다.

◆구조적 강세장의 조건은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으로 일시 진정됐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하다”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구조적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상승을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도약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 수준, 공매도 정책의 잦은 변경 등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외국인 자금이 단기 유입에 그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려면 이런 근본 요인을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대한 믿음도 약하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디딤펀드 설정액 2000억… 수익률 12.5%

금융투자협회, 출시 1년 성과

상위 10개 펀드 평균수익률 16.5%

퇴직연금 전용 자산배분형 상품 ‘디딤펀드’가 출시 1년을 맞았다. 높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완만한 수익 흐름을 유지하며 설정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9월 25개 자산운용사가 공동 출시한 디딤펀드의 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상위 10개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16.5%, 전체 평균은 12.5%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8.8%에서 +31.9%, S&P500은 -2.9%에서 +15.8% 범위로 등락했다. 금투협은 “디딤펀드가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제어하며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5개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으며, 24개 펀드가 원리금보장형 상

품의 평균수익률(3.67%)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18개 펀드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했다. 전체 펀드 중 12개는 월간 수익률 기준 상위 10위권에 7회 이상 진입해 운용 성과의 일관성을 보였다.

디딤펀드 설정원본은 1년 새 1477억원이 새로 유입되며 227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개인 중심의 DC·IRP 계좌 외에 법인자금 약 280억원이 새로 들어왔다. 금투협은 “디딤펀드의 자산배분 구조와 운용성과가 법인의 자금관리 수요에 부합하면서 투자 기반이 다변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업권별 판매 비중은 증권사 77%, 은행 15%, 보험 6%, 기타 2%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은행(7%→15%), 보험(3%→6%) 비중이 늘며 판매채널이 확대됐다. 지난 5월에는 디폴트옵션에 첫 편입사례가 발생했다. 향후 트랙레코드가 쌓이면 성과 우수 펀드를 중

심으로 추가 편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디딤펀드는 주식 편입 한도를 50%, 투자부적격채권을 30%로 제한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전액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운용성향에 따라 적립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한도(70%) 내에서 자산배분을 보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수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50%와 원리금보장형 상품 50%, 중도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100%, 적극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30%와 실적배당형 상품 70%를 조합할 수 있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디딤펀드는 연기금 운용방식에 기반한 자산배분형 연금투자 모델로, 퇴직연금 시장의 분산투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성과 축적과 디폴트옵션 확대를 통해 장기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왼쪽부터)가브리엘 림(Gabriel Lim)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 대표와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 추엔야우(En Yaw Chue) 아젤리아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최고투자책임자(CIO)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싱가포르 아젤리아 등과 맞손

대체투자 전문성 기반 상품 공급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계열의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과 세비오라 그룹 산하 사모펀드(PE) 자산운용사인 아젤리아(Azalea Investment Management) 등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젤리아의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규 상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관 및 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마섹 산하 운용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격의 세비오라는 테마섹의 100% 자회사로, 지난 9월 1일 취임한 가브리엘 림(Gabriel Lim) 대표가 맡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차관, 리센룽 싱가포르 전 총리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인 림 대표는 “삼성증권과의 협력은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각광 받는 전략을 직접 제공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테마섹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젤리아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추엔야우(En Yaw Chue) 사장은 “삼성증권과 협력해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프라이빗 마켓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은 혁신적이고 투자자 중심적인 솔루션을 통해 프라이빗 마켓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양사의 공동의 지를 잘 보여 준다”고 전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공동투자 및 세컨더리 전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모펀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나증권, 외국인 현지계좌로 국내주식 매매

‘외국인통합계좌’ 첫 거래 성공

하나증권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최근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한 첫 사례이다. 기존에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쓰는 현지 증권사를 통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졌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의 유력 증권사인 엠퍼러증권을 외국인통합계좌 파트너로 유치하고 최근 첫 거래까지 성사시키며,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거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하나금융그룹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이다. 앞서 지난 5월 하나증권은 하나은행과 협업해 해외주식 매매 전용 외화보통예금 상품인 ‘하나 해외주식투자전용통장’을 함께 선보였다. 별도의 외화이체 없이 하나은행 외화계좌에 보유 중인 달러로 하나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허정윤 기자

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 美 시장 7개월째 역성장 ‘온도차’

산업부, 9월 자동차산업 동향

EU·아시아가 北美 부진 상쇄
전기·하이브리드 쌍끌이 호조
친환경차 수출 비중 40% 육박
10월 조업 감소·통상 불확실성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낮은 주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 7898대(20.8% ↑), 수출량은 22만8153대(11.0% ↑)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 아시아(62.3% ↑), 중남미(36.4% ↑)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22.9% ↑)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 7824대(55.7% ↑), 전기차는 2만9288대(38.9% ↑),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 ↑)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 ↑)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

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 수출액은 541억달러(2.2% ↑)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BF 인증기관 재지정

2028년 9월까지 인증 수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농어촌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였다. 또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 개념 확산과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와 함께 2023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위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 대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돼 이번 재지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고 위촉한 심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장관 “농산물 소비 확대 지원”

군수협의회와 농촌정책 협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역상생직판 개막 행사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상생 가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와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적시 이행을 위한 군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원랜드 슬롯수출 8년간 104억 적자

231억 쓰고 실적은 ‘제로 수준’
캄보디아 계약 불공정 논란
유령계약 의혹에 안전 우려까지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 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의 질문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펏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순창·남해 등 7곳 2년간 지역상품권 지원

농식품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내 7개 군(郡) 거주민들이 향후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받는다. 기간은 내년 초부터 후년 말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2년간(2026~2027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

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이 중 7곳이 뽑혔다. 선정 기준은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에센 융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2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3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4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5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6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7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8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9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0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1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12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13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14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포항시, 철강 등 지역산업 연계 ‘포항형 MICE 모델’ 준비

2027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첨단·친환경 국제포럼 적극 유치
‘동북아 그린 MICE 허브’ 육성 구상

포항이 ‘철강산업의 도시’를 넘어 첨단산업과 국제교류가 어우러진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는 2027년 개관을 앞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전시·컨벤션(MICE) 산업은 디지털 전환, ESG, 산업연계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포항 역시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포항형 MICE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POEX의 가장 큰 강점은 산학연 협력이다. 포스텍,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시 참가자들이 산업현장과 연구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조감도.

/포항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학술 발표, 기술 전시, 스타트업 신제품 소개, 투자 상담이 동시에 진행돼 연구-산업-자본을 잇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청년층은 인턴십과 행사 참여를 통해 글로벌 MICE 실무를 경험하고,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MICE 산업의 새로운 흐름인 블레저(Bleisure·Business+Leisure) 개념도 POEX의 핵심 전략이다. 대규모 행사 참가자들이 업무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포항의 해양·문화 관광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일대해수욕장, 호미곶, 죽도시장 등 관광지와 포항국제불빛축제 같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호텔·외식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관광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POEX는 북구 장성동 옛 미군기지 ‘캠프 리브’ 부지(26,608㎡)에 건립 중이다. 총 연면적 63,818㎡(지하 1층·지

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2,166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후 전시장과 부대시설을 확충해 국제 대형 전시회와 학회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이차전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관련 국제포럼을 적극 유치해 POEX를 ‘동북아 그린 MICE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POEX는 전문가만의 공간이 아니다. 전시·공연·체험행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청년에게는 MICE 산업 실무 경험과 일자리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박람회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컨벤션센터’로 나아갈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POEX는 산업과 관광, 학술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관을 통해 ‘철의 도시’를 넘어 ‘포항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신당천 하천정비 속도

경주시는 하천 재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물천리에서 형산강 합류부에 이르는 신당천 지방하천 구간(8.07km)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66억 원(도비 219억 원, 시비 147억 원)을 투입해 하천보축 및 확장 정비,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진행 중이다.

2021년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1~4차 공정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희망교 재가설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동산교 거더 거치와 슬라브 타설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차분 공정과 전체 구간을 조기 준공할 예정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

“가을장미페스타’ 놀러오세요”

포항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영일대장미원에서 ‘2025 포항 가을장미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의 낭만과 도심 속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바다와 장미의 만남’을 주제로 포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산불 재난 대응체제 강화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 추진
소방용수 접근성 획기적 개선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사진)가 전국 최초로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형 다기능 담수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최근 산불의 대형화·연중화 추세에 하천수를 직접 활용한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기능 담수보 설치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산청·하동 지리산 지역 대형 산불 당시 하천수 활용이 산불 진화에 큰 효과를 거둔 것을 계기로 추진된다. 산불 발생 시 하천수를 소방 헬기나 소방차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범 대상지는 지리산 권역의 함양 임천과 산청 덕전강으로, 산불조심기간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한 하천 폭



60m 이상, 유역면적 50㎢ 이상의 중형 하천을 선정했다.

각 대상지에는 높이 1.5~2.0m 규모의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최대 1만 8000톤의 물을 채울 수 있다. 필요시 기립(起立)시켜 확보한 담수를 활용하고, 홍수기에는 전도(顛倒)시켜 하천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로, 계획 홍수위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친환경 공법이 적용된다.

사업비는 보(梁)당 약 13억원 규모로, 도는 올 하반기 설계 용역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고, 헬기 급수 및 지상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도내 화장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터참 모스크바

경북기업 공동관 통해 109건 상담

경북도는 15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열린 제32회 ‘인터참(InterCHARM)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20개국 1700여 기업체가 참가했으며, 경북 화장품 기업들은 최신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유코스메틱, 미진화장품, 블레스드, 셀드로우, 애니룩스, 토브, 허브F&C 등 경북도내 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약 15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미진화장품



‘인터참(InterCHARM) 모스크바’ 경북 홍보관.

은 러시아의 마스크홀릭(Maskoholic)사와 귀걸이형 리프팅 시트 마스크 팩 3종 수출 계약을 체결해 5만 1,000달러의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참가 기업들을 위한 수출 상담 통역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했다. 또한 경북도 연해주 통상투자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펼쳤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전남캠핑관광박람회, 3만5000명 ‘복적’

해남군 캠핑·관광 융합 복합축제 호평

국내 유일의 캠핑과 관광이 융합된 전남캠핑관광박람회가 전남 해남에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해남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했다. 캠핑 관련 100개 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와 4000명의 캠핑객이 참여한 캠핑대회 등으로 오시아노 관광지가 캠핑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행사기간 사흘 동안 캠핑객을 비롯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 등 3만 5000여명(10월 19일 정오 기준)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족들이 오시아노 해변의 캠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지속가능한 친환경캠핑 캠페인과 포럼, 오시아노 음악공원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 캠핑문화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며 호평받았다.

명현관 군수는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RE100 국가산단 유치와 에너지신도시 조성 등 전남의 미래산업과 어우러져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주시, 지역 농특산물 ‘LA한인축제’ 출품

홍삼·벌꿀 등 11만 달러 규모

영주시가 미국 최대 한인문화행사인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주 수출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52회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 25종을 선보였다.

이번 영주시의 참가에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소백산아래, 나드리푸드, 라삼농업회사법인 등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홍삼, 벌꿀, 잼, 부각, 쪼면 등 전통성과 현대 감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식품을 출품하며

현지 시장에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출품 규모는 총 11만 달러(한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한다.

영주시는 이번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숙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주의 특산물이 LA한인축제를 통해 미주 교민은 물론 현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 먹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설명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 해운 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과 24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저시황기 우려 확산에 따라 국적 선사의 경영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해진공은 이번 사업 설명회와 함께 16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중견·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 ESG지원펀드 공모 사업 참여 선사 모집에 나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캄보디아 사태… 동남아 진출 유통사, 현지전략 ‘적신호’

이마트24, 현지서 점포 7곳 운영
파리바게뜨·BBQ치킨 등 진출 중

“아직 매출·파견직원 피해 없어
동남아 전반 여행불안 심리 번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던 국내 유통업체의 현지 확장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돼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치안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K-유통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현지화와 차별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긴장감 속에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지 범죄 단체에 붙잡히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 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실이 법무부로



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의 내부, 프놈펜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24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그쳤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22명, 2024년 3248명으로 폭증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이마트24 점포 7곳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푸레쥬르, BBQ치킨, 롯데리아가 진출해 운영 중이다. 다만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한 만큼 현재까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가맹 사업 권한을 현지 업체에 부여하는 사업 형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현지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기에 매출에 영향은 없고 현지에 파견나간 직원 1명도 피해상

황이 보고된 바 없다”며 “상황을 계속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조직 중 일부는 국경 인근에 위치한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2호점을 냈다. 다만 이마트 노브랜드 역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라오스에 진출한 상황이다.

유통업체에선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 자체는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아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치안 등 불안 문제

로 인해 신규 진출을 꺼리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진출을 고려하던 유통업체 기업 중 계획을 재검토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동남아 전반에 대한 여행 불안 심리로 번지면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체는 한한령 이후 동남아를 새로운 교두보로 삼아 공략을 가속화해왔다. 하지만 K-유통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겹치며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는 별로 없다”며 “과거 중국 시장처럼 현지 로컬 업체가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진출 기업들의 성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부진의 원인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어 “동남아 현지 로컬 업체와 다른 국내 기업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화와 차별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PC그룹 파리바게뜨 몽골 1호점 ‘자이산스퀘어점’ 전경. /SPC그룹

SPC ‘파리바게뜨’ 몽골 울란바토르 진출 1호점 ‘자이산스퀘어점’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1호점 ‘자이산스퀘어점’을 오픈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중국법인은 지난해 몽골 대표 식품·외식 기업 푸드코프(Foodcorp LLC)와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푸드코프는 몽골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으로 제조·외식·유통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식품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연내 울란바토르 시내에 2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몽골 시장에 빠르게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몽골 1호점 자이산스퀘어점은 울란바토르 남부의 대표 복합 쇼핑몰 자이산스퀘어(Zaisan Square) 1층에 90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를 적용해 헤링본 무늬 바닥 등 목재를 적극 활용한 인테리어로 유럽풍 감성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GS25 군고구마·즉석어묵 등 동절기 상품 매출 급증

가을비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편의점 동절기 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지난 주말(19일)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군고구마, 즉석어묵, 핫팩 등 동절기 카테고리 매출이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GS25에 따르면 지난 19일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핫팩이 587.3%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군고구마는 175.6%, 즉석어묵은 111.2% 각각 증가했으며, 따뜻한 꿀음료와 한방음료 매출도 50% 이상 늘었다. 특히 원두커피 카페25의 경우, 핫아메리카노 판매 비중이 일주일 만에 46%에서 62%로 크게 치솟았다.

GS25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동절기 상품 라인업 확대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대표 겨울 간식인 호빵은 이달 22일부터 아채·피자 호빵을 추가로 선보이며, 10~11월 GS페이로 번들 상품 구매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百, 업계 첫 PPA 도입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 ‘2040년 탄소중립’ 가시화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시범도입
연간 863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롯데백화점이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도입하며 ‘204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 제3자 PPA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이는 발전사가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한국전력의 중개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1.1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번 PPA 도입으로 파주점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1,851MWh에 달하게 되며, 이는 연간 86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다. 파주점은 이 전부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과 47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등 환경 경영을 실천해왔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파주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66MW의 PPA를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24년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 선정,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획득, ‘한국에너지대상’ 장관상 수상 등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천하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김혜라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장은 “PPA 도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내일부터 그로서리 할인전

5일간 ‘쓱닷컴 22Week’ 행사

SSG닷컴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쓱닷컴 22Week’ 행사를 열고 그로서리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임딜, 쓱배송 22대 특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타임딜 대표상품으로 ‘제주 햇 감귤’, ‘1등급 한우 등심’, ‘동원 라이트스탠다드 참치’ 등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쓱배송 22대 특가전’에서는 ‘왕가서천김 직화구이김’, ‘CJ해찬들 100% 국산고추장’ 등을 1+1 구성으로, ‘동원참치’ 등 판매자배송 상품은 15%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2만원대 ‘덕다운 경량 베스트’ 선보여

홈플러스, 자체브랜드 F2F

홈플러스가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자체 브랜드(PB) ‘F2F’의 ‘덕다운 경량 베스트’ 등 신상품을 선보이며 겨울·간절기 의류 판매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F2F 덕다운 경량 베스트는 오리 솜털과 깃털 비율을 8대 2로 채워 보온성을 높였으며, 주머니에 기모 원단을 사용했다. 남성용은 5가지, 여성용은 2가지 색상으로 구

성됐다.

기능성 이너웨어인 히트플러스는 보온성을 강화한 소재로 개선했으며, 1만원대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패딩 점퍼와 베스트는 2만원대부터, 성인 플리스와 맨투맨은 1만원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고물가 속에 합리적인 가격의 F2F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바람막이 점퍼류 매출은 전년 대비 13% 성장했으며, 지난해 F/W 시즌에도 전체 의류 매출이 약 9% 성장한 바 있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크레잇’ 팝업스토어 성황

국순당과 맞손… 3일간 진행

CJ제일제당 식자재 전문 브랜드 ‘크레잇(Creelat)’의 MZ세대 타겟 팝업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팝업 행사는 전통주 대표기업 ‘국순당’과 손잡고 지난 17일부터 3일간 서울 이태원 소재 대규모 요리주점 ‘술꼬마’에서 진행됐다. 브랜드간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스토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팝업에서는 ‘술꼬마’와의 화려한 콜라보’를 슬로건으로 ‘크레잇’을 활용한 트렌디한 안주 메뉴와 함께 국순당 프리미엄 고구마증류소주 ‘려’, ‘쌀막걸리’ 제품 등이 페어링됐다. 선보인 메뉴는 ‘가지만두그라탕’, ‘스팸카츠’, ‘떡갈비쌔깃전’, ‘홍가리비술찜’ 등 ‘크레잇’ 전문셰프가 함께 참여한 안주 페



크레잇과 국순당이 지난 17일부터 3일간 이태원 소재 요리주점 ‘술꼬마’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CJ제일제당

어링 4종으로, 방문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가지만두그라탕’ 메뉴는 크레잇 물만두와 가지를 그라탕으로 요리해 ‘더 오랜지 하이볼’과 함께 제공됐다. ‘스팸카츠’는 스팸을 핑거푸드 튀김 형태로 조리해 치폴레마요소스와 함께 ‘려맥’과 페어링돼 호평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벤티지랩 “엠제이, 악의적 공격… 신주상장 예정대로 진행”

신주 상장·발행 금지 소송

인벤티지랩, 엠제이 법적조치 착수
‘시장 혼란·회사 압박’ 의도 판단
“주주가치 훼손 행위 단호히 대응”

인벤티지랩이 신주 발행을 앞두고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측은 엠제이파트너스(엠제이)가 제기한 신주상장 가치분 신청 등의 소송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엠제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상장금지 가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인벤티지랩은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거래소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신주상장 예정일(20일)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 오후에 제기된 가치분 신청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9월 국내 투자기관을 상대로 39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지난 달 전환청구가 접수되어 20일 160만9756주의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엠제이측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인벤티지랩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 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벤티지랩은 과거 엠제이와의

어떤 접점도 없었으며, 이번 소송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벤티지랩측은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엠제이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거래가 있던 업체도 아니고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지 못해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엠제이의 악의적인 소송은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였다”며 “이번 가치분 역시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지속되는 근거없는 공격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안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협력 범위의 확장도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제약사, 스페셜티 파마 및 바이오텍들과도 연구,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국콜마, ‘AI 팩토리 사업’ 주관… “K-뷰티 경쟁력 높일 것”

국내 화장품 기업 유일 선정 “기술력·혁신 역량 인정 받아”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부 ‘AI 팩토리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비용, 탄소 배출 등을 감축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4개월간 진행된다.

한국콜마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화 시스템을 개발해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 공장은 사람이 설정한



한국콜마 세종공장에서 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한국콜마.

작업 조건에 따라 기계가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머무는 데 비해 AI 팩토리는 인공지능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한국콜마는 생산 계획, 제조, 품질관리, 충전·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뤘을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화장품 생산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품질 향상과 공정 정확도를 높이는 자율 공정 제어 인공지능 모델 설계 등이다.

특히 공정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95%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콜마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자동화 시설을 활용해 왔고 모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제조 공정의 불량률을 기존 대비 42% 감소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AI 팩토리를 적용할 경우,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은 줄이고 다품종 소량 생

산에 최적화된 첨단 제조 체계를 갖춰 고객사의 보다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콜마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자율화 시스템은 향후 국내외 콜마그룹 공장 모두에 도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독자 기술력의 입지를 넓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AI 팩토리 사업에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하게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콜마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K뷰티 제조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소아 적응증 추가 ‘헴리브라’ WHO 필수 의약품 등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美 FDA 품목허가 승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소아 적응증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적응증은 소아성 포도막염과 화농성 한선염 등 2가지다.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다.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20mg/0.2ml, 40mg/0.4ml, 80mg/0.8ml 등 총 3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을 구성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의 소아 적응증에 대한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번 품목허가를 획득해 빠른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 기반을 다졌다.

또 셀트리온은 이중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판로를 늘리고 있다. 낮은 도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가격과 높은 도매가격으로 판로를 구축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낸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을 인증받아 교차 처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상호교환성 제도는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을 바 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 소아 적응증 추가 획득으로 미국서 소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공돼 의료 현장에서 처방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형 혈우병 치료제〉

JW중외제약 “임상적 가치 인정받아”

JW중외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과 소아용 필수 의약품 목록 2025년 개정판에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새롭게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WHO 필수 의약품 목록은 각 국가별 공공 조달 및 건강보험 급여 정책 수립의 기준 문서로 활용된다.

‘헴리브라’는 이종특이항체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갖췄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연령이나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연간 출혈률(ABR)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절 출혈 감소 및 관절 기능 유지 효과도 입증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부분 이상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으로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다. 또 고용량의 활성화 프로트롬빈 복합제(aPCC)를 병용할 경우 드물게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권장 지침을 준수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헴리브라는 최대 4주 1회 피하 주사만으로 출혈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특징이다. 환자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1·2·4주 간격으로 투약 주기를 선택함으로써 통원 부담은 줄이고 치료 순응도는 높인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WHO 필수 의약품 등재는 헴리브라의 임상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헴리브라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GE20'S

파운데이션 점유율 1위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소비자패널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업 ‘월드패널 바이 뉴머레이터’에서 발표한 국내 파운데이션 구매량 조사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드패널 바이 뉴머레이터 세계 최대 규모 조사기관으로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65세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집계됐고 누적 대상자는 1500만 명에 달한다.

‘에이지투웨니스(AGE20'S)’는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에센스 팩트의 경우 2013년 9월 출시 후 2025년 6월까지 단일 품목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3000만 개를 돌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국내 파운데이션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소비자들 덕분”이라며 “독자 기술과 높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소비 기대에 부응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활건강 ‘더후’ 비첩 자생 NAD 파워 앰플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에서 ‘비첩 자생 NAD 파워 앰플(사 진)’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더후 대표 제품군인 ‘비첩’의 첫 앰플이다. LG생활건강이 독자 배합한 저속 노화 핵심 성분 ‘NAD 파워24’를 50% 함유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1회 사용으로 모공 탄력, 피부 결, 윤기, 보습까지 관리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더후 브랜드 관계자는 “비첩 라인 대표 제품인 자생 에센스와 앰플을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 속 장벽이 33% 개선된다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했다”며 “더후의 피부 장수 노하우를 집대성한 NAD 파워 앰플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탈모 치료제 ‘유한미녹펜젤’

유한양행이 탈모 치료용 외용제 ‘유한미녹펜젤’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한미녹펜젤’은 미녹시딜 5%를 함유하며 마사지용 구를 탑재한 펜 형태 일반 의약품이다.

겉 제형의 약액을 손에 묻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 정밀하게 도포할 수 있다. 탈모 부위에서 가볍고 부드럽게 문지르면 된다. 흘려내림이나 번짐 없이 정수리, M자, 헤어라인 등 국소 부위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 아트 페스타’ 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9일 경남도립미술관 미술주
간에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며
소통하는 ‘상생 아트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임직원 800여 명을 경남
창원시 경남도립미술관으로 초청해 정은혜 작가와 ‘경남
느티나무의 사랑’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팝업 전시를
함께 관람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아제약,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전달

동아제약은 여성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
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비영리기관 지파운데이션과 경북 상주시를 통
해 여성용품 브랜드 템포의 생리대 총 1만 6800팩을 전달
했다.

/동아제약



현대글로비스, 서울 상원초등학교와 생태숲 체험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8일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
동으로 서울 상원초등학교 재학생 및 가족들과 생태숲 체
험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상원초는 지난해
현대글로비스가 조성한 ‘생태숲 1호’ 주인공이다. 학생들
이 직접 설계공모전에 참여해 디자인한 약 50㎡(15평) 규
모 유희부지 생태숲에 미션나무, 제주산버들, 부채붓꽃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심고 가꿔 나가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효성,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후원

효성이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배리어
프리영화 제작 사업을 후원한다. 효성은 오는 11월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울장애인예술창작
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를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효성



韓맥도날드 ‘한국의 맛’, 필 굿 마케팅 어워즈 금상

글로벌 맥도날드의 ‘필 굿 마케팅 어워즈(Feel Good Mar
keting Awards)’에서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
인이 최고의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이번 수상은
사상 최초로 ‘한국의 맛’ 캠페인이 론칭된 2021년 이후 다
섯 해 동안 축적되어 온 진정성 및 국내 소비자 반응이 세
계 시장에서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맥도날드

삼성전자, ‘아트바젤 파리 작품’ 삼성 아트스토어 공개

아트바젤 파리 삼성 전시존서 국내 추상미술 이성자 화백 등 삼성 TV 통해 컬렉션 감상 가능

삼성전자가아트바젤의 공식 디스
플레이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아트바젤파리에 출품
된 22점의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
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전 세계 유
명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작품 4000여
점을 갤러리와 같은 4K 화질로 감상
할 수 있다.

아트바젤은근현대미술을 전시하
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매년 홍콩,
바젤, 파리,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며,
이번 아트 바젤 인 파리는 오는 24일
(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파리 중심
부 ‘그랑 팔레’에서 열린다.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루도빅 은코스(Ludovic Nkoth)의 ‘하루의 무게(A Day’s Weight)’를 만나볼 수 있다.

/삼성전자

관람객들은 삼성 전시존에서 마이
크로 RGB, Neo QLED, 더 프레임
등 삼성 TV를 통해 아트 바젤 파리
컬렉션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존에는 국내 추상미술의 선
구자이자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성자
화백의 작품들이 삼성 아트 TV로 전
시된다.

이번 아트 바젤 파리 컬렉션은 우

리의 삶과 세상을 비추는 방식을 새롭
게 정의하는 예술가들을 조명한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
카 등 다양한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2025년 미술계의 ‘현재’를 포착한다.

파스칼마르틴타유의작품 ‘기자에
서의 꿈’은 이주, 혼종성, 문화 교류라
는 주제를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세계적 담론과 개인적 경험

현대百그룹, 미래 리테일 인재 육성

서울대에 리테일 연계전공 개설

6개 학과, 현대百 9개 계열사 참여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리테
일 연계전공’ 과정 운영에 참여하며
미래 리테일 인재 육성에 나선다. 현
대백화점그룹은 서울대학교와 ‘리테
일 연계전공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장호진현대지에
프홀딩스 사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
장, 추호정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리
테일혁신센터장 겸 리테일 연계전공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서울대가
2026년 1학기부터 개설하는 리테일
연계전공 과정에 현대백화점그룹이
참여해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번 연계전공은 의류학과, 소
비자학과 등 6개 학과와 현대백화점
그룹 9개 계열사가 참여해 이론과 실
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교육 모

델’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수강생들의 실
무 경험 강화를 위해 계열사별 전문
성을 살린 특강을 제공하고, 학점 연
계형 단기 인턴십과 멘토링, 우수 학
생을 위한 장학금 등을 지원할 방침
이다.

서울대 추호정 리테일 연계전공 주
임교수는 “리테일 핵심 이론을 바탕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유연한
교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대의 학문적 역량과 현대백화점그룹
의 산업 경험이 결합해 미래 리테일
인재를 길러내는 모범 모델로 발전하
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은
“서울대와 함께하는 리테일 연계전공
은 학문과 산업이 함께 미래를 준비
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가 곧 산업 혁신의
밑거름이라는 신념으로 이번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소진공-대전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기반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
일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살
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비수도권 지역과의 동반 관
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
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ESG
가치 확산과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소진공은중구지역의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구청에 온누
리상품권 500만원도 전달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대형마트 폐점
위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대전 중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홍보 ▲키오스크 보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김제선 대
전 중구청장과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급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강화를
위한 정책홍보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소진공은지역 소상공인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 임직원 대상
대전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통
합 로컬 페스타 관련 협업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hy,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사 참여

‘월’ 패키지에 공식 엠블럼 삽입

hy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사
로 참여한다. 이번 후원은 지난 10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식
화됐다. 국내 발효유 기업 중 홍보 협
력사로는 hy가 유일하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해 경제·통상·안보 등 분
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의 경제협력체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는 2005

년부산개최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
이 의장국을 맡아 의미가 있다.

hy는 일평균 70만 개 이상 판매되
는 대표 브랜드 ‘월’ 패키지에 공식
엠블럼을 삽입하고 행사를 알린다.
수출 전용 제품에도 같은 로고를 담
아 글로벌 시장에 APEC 2025 KOR
EA의 미션과 비전을 전한다. 국내
고객에게 전달되는제품 홍보용 리플
렛 40만부에도 동일한 내용을 삽입한
다. 인천공항 전광판을 비롯한 다양
한 매체를 통해 관련 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충북 단양군 ◇5급 승진 △주민복지
과 박종미 △자치행정과 김상규 △주민
복지과 박상규 △안전전설과 김재봉
-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 승진 △영
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부음

▲송금봉씨 별세, 강동한(중소기업중앙
회 부회장)씨 장모상 = 20일, 동국대경
주병원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22일 오
전 7시30분. 장지 경주 하늘마루 봉안
당. 054-770-8334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
강연	14:50~15: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15:20~15:5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15:50~16:20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I, 150년 된 화학반응서 요리의 답 찾다



연 윤 열 의
푸드톡

영화 ‘아이언맨’ 속 인공지능(AI) 비서 ‘자비스’는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척척 내 놓는다. 만약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A I 셰프가 우리 집 주방에 들어 온다면 된장 찌개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끓이는 법과,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구워서 최고의 풍미를 찾아내는 비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 같았던 이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국내 과학기술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 그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식품의 맛, 향, 식감은 아미노산, 당, 유기산 등 다양한 성분간의 복잡한 화학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AI 로봇플랫폼은 온도, 시간, pH, 원료의 농도 비율 등 수많은 변수를 조합해서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로스팅 조건에서 피라진과 같은 향기 성분이 최대로 생성되는지, 혹은 인

돌과 같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기존 정밀 분석기술이 한가지 샘플을 분석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비용도 비쌌던 반면, 이 기술은 샘플 하나당 1분 이내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덕분에 로봇은 망설임 없이 수천 가지 실험을 진행하며 맛과 영양의 비밀을 담은 거대한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최상의 레시피 하나를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연구팀은 150년 가까이 연구된 고전적인 화학반응을 이 로봇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9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였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전체적인 복잡계를 밝혀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재료의 비율을 조금 바꾸는 것 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원리를 돼지고기, 김치, 두부, 고추장 등 같은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가정해 볼 때, 깊고 진한 맛을 원한다면 돼지고기 지방을 먼저 충분히 볶아 기름을 이끌어 낸 뒤 신 김치를 넣고 특정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마이야르 반응이 극대화되어 깊고 진한 감

칠맛이 폭증하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원한다면 반대로 채수에 김치를 먼저 넣고 짧게 끓여 아삭함을 살린 뒤 돼지고기와 두부를 나중에 넣어 익히면, 같은 재료라도 완전히 다른 깔끔하고 시원한 맛의 김치찌개가 완성될 수 있다.

AI 로봇은 이처럼 수천 가지 변수 조합을 탐색해서 각각의 ‘맛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덕분에 우리는 같은 재료로도 목적과 취향에 따라 자유 자재로 맛을 조절하는 ‘맞춤형 요리’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맛을 넘어 식품안전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감자를 튀기거나 빵을 구울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AI 로봇은 어떤 온도와 시간, 재료 조합에서 이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지 유해물질 예측 지도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

물론 이 로봇 셰프가 당장 우리 집 주방에 들어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식품기술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국발 리스크’ 배터리 공급망… 장기전략 수립해야



기지 수첩
원 관 회
(산업부)

희토류에 이어 흑연 등 핵심 배터리 소재까지 중국의 수출 규제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 첨단산업은 또다시 ‘공급망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위기가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수차례 경고된 위험이었음에도 한국의 전략자원 정책은 여전히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인조흑연 음극재,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를 넘어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에 대응한 역외 조절 카드로 해석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

능(AI), 전기차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본질은 ‘한 번 공급이 차단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외통수 구조’에 있다. 희토류나 흑연은 여러 국가에 매장돼 있지만, 이를 산업용 소재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까지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 특성상, 원광 확보만으로는 자립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이 수출 밸브를 조이는 순간 밸류체인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속성이 고착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또는 우방국 내 정제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세제 지원, 투자 유도,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내 자원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가 가격 안정기에는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단기 순환형 대응’의 틀을 반복해 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전략 광물 확보 방식, 비축 정책, 해외 투자 방향 등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축적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공급망 안보 체계는 위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정 국가의 조치 하나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급망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다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일이 아니라, 공급망을 ‘축적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심으려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48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72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니 회사가 번창함. 84년생 직장에서 승진되니 경사가 겹겹.



37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49년생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발 양보해보자. 61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 73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 85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보지 말고 세탁을.



38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활기차다. 50년생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을 알차게. 62년생 자주 만나야 마음을 알 수 있다. 74년생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니 더욱 발전이다. 8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39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1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63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의 열쇠가 되니 경청해야. 75년생 노력이 이성의 문제로 사상누각에 처한다. 87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이는 이치.



40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과 측근 조심. 5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실망은 금물. 64년생 신경질 내면 본전 찾기 힘들다. 76년생 소나무처럼 항상 푸른 내 마음이다. 8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41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53년생 해도 해도 바라는 연인은 인생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65년생 행복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 77년생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말조심을. 89년생 지는 앞을 보면 나를 보는 듯하다.



42년생 현실을 받아들이면 후회가 덜하다.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66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78년생 무슨 일이라도 결국은 올바른 이치대로 움직인다. 9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돈에 겸손해야.



43년생 바쁜 하루 보람은 있다. 5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67년생 내키지 않는다고 쟁그리고 지낼 것인가. 79년생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데. 91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참고 견뎌라.



44년생 공과 사를 다시 살펴보자. 5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아직도 무난. 68년생 매파를 보냈으니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 80년생 산길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다. 92년생 소금 장사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45년생 어려운 일이 사돈의 도움으로 해결. 57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해라. 69년생 병원에서 소지품 주의. 81년생 얼음과 솥의 차이를 꼭 먼저보고 알겠는가. 93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그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이니.



46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길. 58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지우지. 70년생 스승님을 찾아뵙자. 82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집안의 계획은 화목에 있다고 했다. 94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47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9년생 현실의 환경에 소심하니 별 탈은 없다. 71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이다. 83년생 인색하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쓸 쓸. 95년생 영업이익이 매끄럽게 풀려가는 하루이다.



김상회의四季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 절망의 순간에 위안을 얻기 위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은다. 예기치 못한 질병 재난 불운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기도를 올린다. 기도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사람의 나약함과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했던 본능적인 표현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도는 오랜 세월 민속과 종교 전통 속에 뿌리내렸고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도는 사람과 신 사람과 조상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사찰의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 염불과 발원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무속에서는 굿과 함께 신령에게 청하는 의례로 나타난다. 민속 차원에서 마을 제사나 가정의 제례를 통해 의미가 표현되었다. 기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행해지지만, 그 중심에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공통된 본질이 있다.

전통 속에서 기도는 마을의 당산나무 앞에 모여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가정에서는 조상 제사를 통해 집안의 평안을 기도했다. 무속에서는 굿과 고사를 통해 신령에게 소원을 고하고 질병이나 불운을 막아달라고 빌었다. 불교에서는 백일기도 천일기도 같은 장기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원력을 세우는 공습이며 사찰의 기도는 특히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다. 불자들은 동지 정초 백중 등 절기마다 기도를 올리며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발원했다. 또한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밤샘 기도를 하거나 몇 달에 걸쳐 기도를 올리며 평안을 빌었다. 간혹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기도가 필요한지 묻는 사람이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경쟁과 속도 불안정한. 이럴 때 기도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2		3		9
3					1		5	2
	8							
		6			3		2	4
1		5	9		4	6		8
4	7		3			5		
							3	
8	3		6					1
5		7		9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2	8	6	1	2	7	9
1	7	2	6	9	9	2	8	8
9	8	1	2	7	2	8	6	9
9	6	9	2	8	6	1	2	7
8	2	9	7	8	6	9	2	1
7	2	8	6	1	2	9	9	6
2	1	6	9	9	7	8	8	2
2	9	7	1	2	8	6	9	8
6	8	8	9	2	9	7	1	2

2	8	9	9	1	7	8	6	2
8	6	9	1	2	8	9	2	7
6	7	8	2	9	2	8	1	9
9	1	8	2	6	2	7	9	9
7	9	2	1	6	8	1	9	8
8	2	2	6	7	9	9	1	8
1	8	7	9	8	9	2	2	6
2	9	6	8	9	1	7	8	2
9	2	1	7	8	2	6	8	9

정근식 “정치 아닌 학생 보호”… 현장 대응력 강화 천명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혐오시위 대응 두고 중립성 논란
학생 인권·정서 보호 최우선 강조
정신건강·학령인구 등 현안 집중
“현장 대응·제도 개선 시급” 언급
교육청, 정책 보완·신뢰 회복 예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혐오표현 시위 대응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두루 점검받았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책 보완 의지를 밝혔다.

◆ ‘혐증 시위 반대 캠페인’ 공방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구로구 한중학교 앞에서 열린 ‘혐증(혐오표현) 시위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캠페인은 일부 단체가 학교 앞에서 반중(反中) 구호를 내세운 시위에 대응해, 학생 혐오와 인종차별 표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현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교육청이 나선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참여한 반중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해당 지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에 달하고, 시위로 인한 학생 불안이 커 학교장들이 대

응을 요청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학생의 인권과 정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은평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도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됐다. 간담회 당일 박 의원이 서울 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 간담회를 연 것은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실은 당일 알지 못했다”라며 “간담회는 박 의원 지역구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청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요청이 있으면 학부모·학생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라며 “특석고등학교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과 협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학생 정신건강 대응 실효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학생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위기개입→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사회적 대응 과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 1회 회의에 그쳤고 실질적 활동이 미흡하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위원회는 내부·외부위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 개선 중”이라며 “예방교육 강화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학령인구 감소·학군 불균형 지적

학령인구 급감과 학군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은 전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적응 대책뿐 아니라 인구 유출을 완화할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5년간 학교 통폐합 계획을 단 한 곳만 세운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과 인근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맞물린 결과”라며 “현재 통폐합 계획은 1건이지만 중장기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교육감은 국감 인사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래교육, 돌봄, AI·디지털 교육, 학생 안전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과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무장애 넘어 ‘포용학교’ 만든다

전국 첫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정서·다문화 학생 환경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장애 여부, 성별,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혁신안으로, 교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포용까지 포함한 통합 설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1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5~2029년도 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은 기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넘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고 있는 정서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름을 넘어 공존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물리적 편의시설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문화적 수용, 성인지 감수성 등 비

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과제는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조명·색채·소음 조절 등 심리 안정형 공간 설계 기준 마련 ▲다문화 학생을 위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및 다국어 안내체계 표준화 ▲성별에 따른 안전·편의 격차를 해소하는 성인지 공간 설계 ▲교직원·학부모 등 다양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기준 정립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연령별 신체·인지 특성에 맞춘 설계 세부 기준 마련 등이다.

/이현진 기자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인천 개최

IMF·OECD 등 2000명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으로, 인천광역시와 국제 협력의 중심 무대로 다시 한 번 주목받는다.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경제의 재무 및 구조개혁 장관은 물론 IMF, 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한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에는 역대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APEC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인천플랜(Incheon Plan)’ 채택이 유력하다.

인천시는 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해 왔다. 환영만찬을 비롯해 인천 홍보관 및 기업부스 운영, 해외 대표단 대상 관광 프로그램, 수송과 의료 지원 체계 마련 등 각종 지원이 총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 설치될

인천 홍보관과 기업부스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 미래 산업 역량은 물론, 인천의 전략산업과 도시 브랜드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참가자들에게 인천의 첨단성과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관광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송도 G타워 전망대와 수상택시 체험 등을 포함한 아간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25일까지 회의장과 숙소를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인천의 료원 및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 대응체계도 갖춰진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캄보디아 파견 경기 청년특사단 귀국 완료

캄폰스페우·시엠립 체류 청년 34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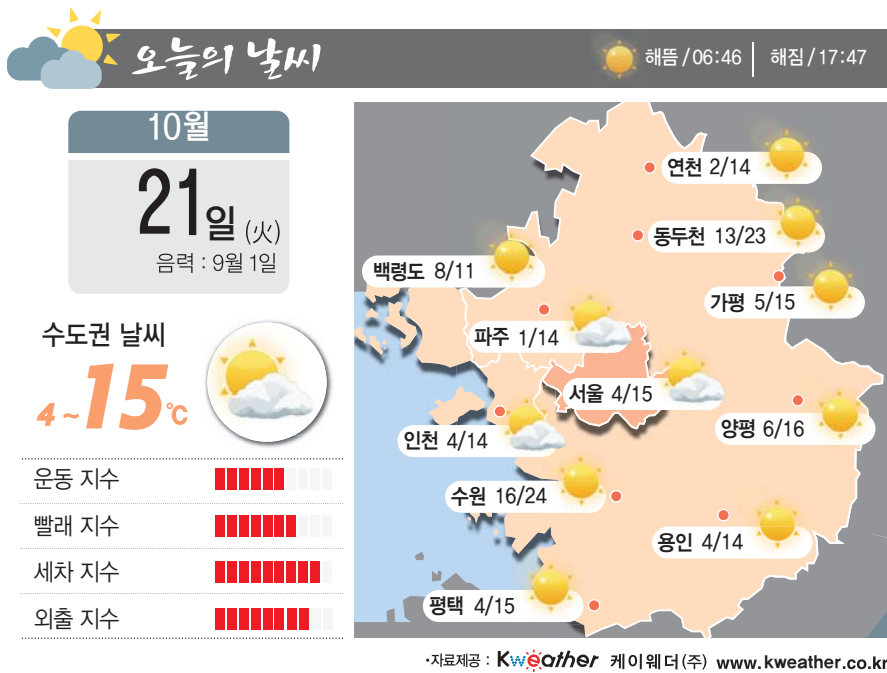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폰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기후특

사단’은 총 34명(단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폰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불가피하게 당초 18일간 계획되었던 특사단의 캄보디아 활동기간을 단축하긴 하지만 특사단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협력국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8%…예상치 부합

▲트럼프 “한국서 시진핑과 만날 것… 별도 회담 잡아”
/사진 뉴스시스

▲홍콩서 UAE 화물기 착륙 도중 활주로 벗어나… 2명 사망

▲가자 휴전 연일 위태위태… 군사 충돌 악화로 사망자 46명

▲인도네시아 타남바르 제도에서 규모 5.1 지진 발생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4인조 과한이 보석류 9점 훔쳐



캄보디아 사태
동남아 진출 유통사
현지전략 적신후
L1



Life

삼성전자
아트바젤 작품
아트스토어 공개
L4



협업으로 성과, 신뢰로 미래를... 'IB맨'의 실행력, 성장 이끌다

CEO 와칭

윤 병 윤 NH투자증권 사장

“도약을 위한 첫번째 준비는 내부역량의 결집이다” 윤병윤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꺼낸 첫 메시지다. 그는 “밖으로는 고객과 시장에 집중하면서 안으로는 조직간 화합과 협업을 통해 상호 레버리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합과 협력은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부 내, 사업부 간, 영업조직과 지원조직 간 다방면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기업금융 현장을 누빈 ‘IB맨’의 철학은 협업과 실행, 그리고 시장과 고객으로 수렴됐다.

1967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윤 사장은 영등포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중어 중문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곧장 LG투자증권에 입사해 홍콩현지법인과 국제업무팀에서 근무하며 조기 글로벌 감각을 익혔고, 이후 기업금융으로 자리를 옮겨 실무를 쌓았다. 2005년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직한 뒤 기업금융팀장과 커버리지 본부장을 거쳤고, NH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바뀐 이후에도 기업금융 부문을 주도하며 그룹 내 비은행 수익 다변화에 중심축 역할을 했다. 2018년 IB1사업부 대표로 선임되면서 IPO·유상증자·여전채·인수금융을 총괄했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인수금융·공개매수·상장폐지’ 패키지 딜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첫 사례로 남았다.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네트워크가 결국 대표이사 자리로 이어졌다.

대표이사 인선 과정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간 갈등의 상징으로 꼽혔다. 중앙회는 비금융 출신 인사를 밀었으나 금융지주와 금융당국은 금융 전문성을 앞세운 윤병윤을 지지했다. 결국 2024년 3월 27일, 오랜 기간 기업금융을 지휘해온 내부 출신 인물이 낙점됐다. 이는 농협금융 내 비은행 계열사의 독자성과 IB 기능 강화를 반영하는 인사로 해석됐다.



30년 기업금융 현장 누빈 ‘IB맨’
지난해, 내부 출신 CEO로 선임
취임 후 IB부문 영업이익 늘어
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등 성과

리테일·디지털·글로벌로 확장
PWM 신설... 연금시장 차별화
콘텐츠로 대면·온라인 동시 강화

ROE 12% 달성, 기본배당 확대
쌀 소비 캠페인으로 농가 지원도

◆ IB 성적표, 무게중심을 바꾸다

윤 사장의 취임 이후 성과는 숫자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NH투자증권 IB 부문 영업이익은 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늘며 전 사업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회사채 대표주관 2위, 여전채 1위, 유상증자 1위를 차지하며 굵직한 거래를 주도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 유상증자, 호텔신라와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발행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다. 세일즈부문은 2296억원, 트레이딩부문은 811억원, 기타부문은 494억원을 기록해 고른 성장을 이어갔지만 무게중심은 확실히 IB로 이동했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세일즈부문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지만, 윤 사장 취임 첫 해인 2024년에는 IB가 3927억원으로 세일즈(3723억원)를 역전했다. 30년간 ‘IB통’으로 불려온 이력은 실적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윤 사장은 IB에 머물지 않고 리테일·디지털·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PWM사업부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컨설팅본부를 독립시켜 고객자산가와 연금시장에서 차별화를 추진했고, ‘나무팜’, ‘차분이’, ‘큰손PICK’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면·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을 AI 기반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미국 ‘시킹알파’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이코노미스트 등 글로벌 콘텐츠를 요약·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객 맞춤형 종목 분석과 대체 종목 가이드까지 제시하며 거래 플랫폼을 투자 파트너로 격상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자기자본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2025년 농협금융지주 출자로 6500억원을 유상증자 받아 자기자본을 8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종합투자계좌(IMA) 진출 자격을 확보했다. 발행어음과 IMA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며, 연내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운용규제 개편안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NH투자증권의 전략적 행보는 더 빨라졌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화두가 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도 가속화했다. 2024년 12월 이사회에서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ROE 12% 달성,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PBR 1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1 지난 5월 22일 윤병윤 NH투자증권 대표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C포럼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3 지난 6월 17일 열린 NH투자증권의 ‘The First Media Day: 해외투자 새로고침’ 행사에서 윤병윤 NH투자증권 대표가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계획을 내놔다. 기업금융 경쟁력과 자산관리·운용을 연계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고, 초부유층 고객 확대와 해외주식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배당정책은 기본배당 500원을 보장하고 추가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윤 사장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며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언급했다.

◆ ‘숫자’ 너머의 리더십

윤 사장의 리더십은 성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성과 중심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직원 복지를 ‘회사 자산’으로 규정하고, 전국 지점을 돌며 직접 임직원 목소리를 듣는다. 사회적 가치에도 눈을 돌린다.

지난해 말에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을 열어 여의도 파크원타워 로비에서 직원들과 파

크원 입주사 근무자들에게 우리 쌀 꾸러미를 나눠주며 쌀 소비 촉진을 알렸다. 전북 전주 사회복지시설에는 쌀 10kg 2000포를 기탁하기도 했다. 그는 “쌀 가격 불안정으로 시름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수익성 제고와 더불어 농협금융 계열사 CEO다운 행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2025년 현재 NH투자증권은 IB 중심의 압도적 실적, 디지털 전환과 IMA 도전, 밸류업을 통한 주주환원, 그리고 농협다운 사회적 책무까지 아우르며 변곡점에 서 있다. 윤병윤 사장이 강조해온 협업과 실행은 이제 성과와 철학,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며, 관계와 신뢰가 과정을 만든다는 그의 믿음은 NH투자증권의 내일을 향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metroseoul.co.kr

1993년 LG투자증권 입사
1995년 LG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 파견
1996년 LG투자증권 국제업무팀 근무
2007년 우리투자증권 기업금융 3팀장

2010년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 1그룹장
2012년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 본부장
2014년 NH투자증권 커버리지 본부장
2018년 NH투자증권 기업금융 1사업부 대표

2023년 NH투자증권 기업금융 1, 2사업부 총괄 대표(부사장) 승진
2024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선임

메트로 한줄뉴스



▲한화 류현진 vs 삼성 후라도, 21일 3차전 선발 격돌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2차 월드컵 여자 1500m 금빛 질주 /사진 뉴스시스

▲MLB 토론토, 시애틀 6-2로 격파...ALCS 최종 7차전으로
▲‘과거 MLB 유망주’ 몬테로, 오토바이 사고로 별세...향년 35세

▲여자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내달 10일 개최...최윤아 감독 등 참석
▲의수로 붓을 든 화가...석창우 11월 5~11일 47번째 개인전